

충남리포트 제84호 2013. 9. 2

## 충남의 2040 미래전망 및 시사점

### - 지역경제분야 -

김 양 중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kyj0509@cdi.re.kr)

#### 목 차

##### < 요약 >

1. 충남 지역경제의 미래
2. 충남의 불안요인
3. 충남의 미래정책 방향
4. 요약 및 결론

## 〈요 약〉

충남의 2040 미래	위협요소	정책방향
지역내 총생산 3위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인력양성, 정주여건 강화
1인당 지역내 총생산 1위	총생산 대비 낮은 소득수준	사회적 경제 지속적 추진
제조업의 높은 비율	충남 주력산업의 지속여부	신성장 동력 발굴
지속적 수출증가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음	중국에 편중된 교역	수출거래선 다양화 지속적 수출중소기업 지원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 강화

-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 순위는 2010년 3위로 올라섰고, 충남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2020년경에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여겨짐
- 충남의 높은 제조업 비율과 대중국 교역의 확대는 향후에도 충남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
- 그러나 이와 같은 장밋빛 미래에도 충남의 불안요인은 상존함
- 충남도의 제조업에 치중된 성장은 생산인구의 감소와 세계적인 경제 위기하에서 그 취약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충남의 1인당 총생산은 2020년경부터 16개 시·도 중 1위를 유지할 것이나 1인당 지출수준은 13위로 하락하여 그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짐
- 이에 충남은 지역의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이 지역에 남아 지역의 소비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충남의 주력산업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함
- 또한 충남이 타시도보다 한발 앞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회적 경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충남 경제의 기본을 다져가야 할 것임

## 1. 충남 지역경제의 미래

※ 본 연구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략과제 '충남의 미래예측과 대응과제' 중 지역경제분야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 1) 미래의 세계경제

- 세계 경제가 향후 50년간 연평균 3%대의 정상 수준 성장경로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
-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OECD 국가는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연평균 2%대 (1.75~2.25%) 성장을 전망
-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연평균 3%대(3.3~3.9%)의 성장세가 예상
-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할 전망이라 예측
  - KDI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1~2020년 연평균 3.8%에서 2021~2030년 2.9%, 2031~2040년 1.9%로 떨어질 것으로 제시
-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위험성이 상존<sup>1)</sup>

---

1)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기획재정부(2013)

## 2) 미래의 충남경제

-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추세분석인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충남의 GRDP를 전망하였음
- 특히 충남의 향후 생산가능인구와 1998년 외환위기의 영향을 감안하여 추세를 분석

<표 1> 우리나라와 충남의 연평균 성장률

(단위: 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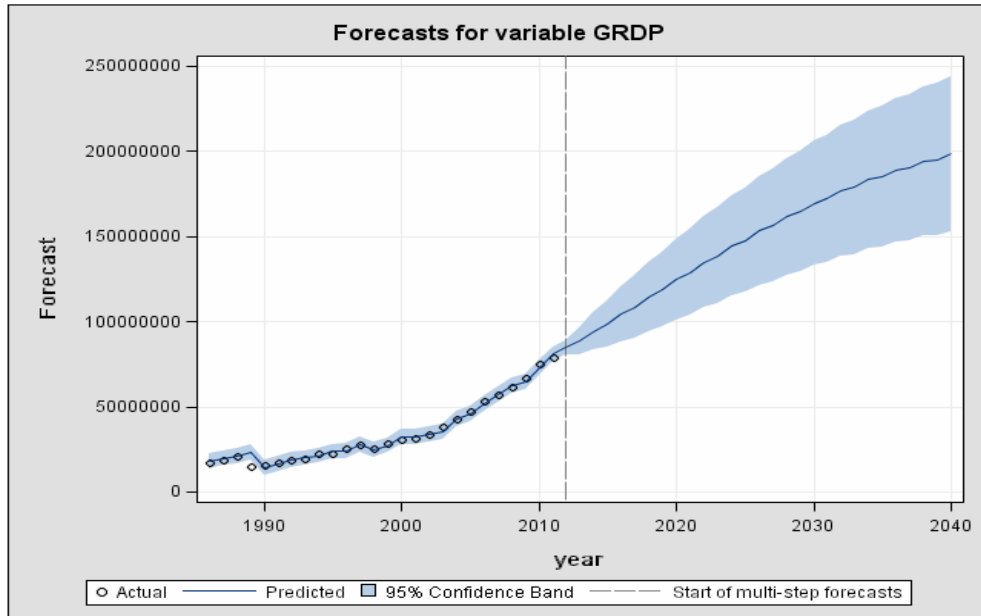
연도	우리나라		충남	
	지역내총생산 (2005년 불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지역내총생산 (2005년 불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2000	691.5	5.5	31.0	6.8
2010	1067.2	4.5	75.6	10.1
2011	1103.6	4.0	79.3	9.8
2020	1543.8	3.8	125.0	5.2
2030	2054.6	2.9	169.6	3.1
2040	2480.2	1.9	198.6	1.6

자료: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기획재정부(2013), 통계청 KOSIS

- 충남의 2011년 현재 지역내 총생산은 79.3조이며, 2040년 198.6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여겨짐
-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충남은 연평균 10.1%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충남도 또한 국가의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며 충남의 잠재성장률이 2011~2020년 연평균 5.2%에서 2021~2030년 3.1%, 2031~2040년에는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충남은 2030년 이후 국가의 저성장기조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충남의 GRDP 추세

(단위: 백만)



○ 95% 신뢰구간으로 충남의 1인당 GRDP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충남의 1인당 GRDP

(단위: 백만원)

연도	충남의 1인당 GRDP(2005년 불변)		
	시나리오1(저성장)	시나리오2(기준성장)	시나리오3(고성장)
2000		33.1	
2010		33.1	
2011		36.4	
2020	45.0	55.5	66.0
2030	56.2	71.6	86.9
2040	63.5	82.5	101.5

자료: 통계청 KOSIS

주: 충남의 미래전망은 ARIMA 모형을 통해 예측

○ 충남의 경우 2011년 현재 1인당 3,640만원으로 GRDP는 국가별 순위 26위인 이탈리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나, 2040년에는 8,350만원으로 지금의 스위스

보다 약간 낮은 소득수준에 오를 것으로 여겨짐

- 만약 저성장기조를 유지한다면 충남의 1인당 GRDP는 6,350만원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고성장기조로 보면 1억 150만원까지도 달성이 가능
- 우리나라의 현재 1인당 GDP는 2,654원으로 세계 순위는 34위임

<표 3> 국가별 1인당 GDP

(단위: 만원)

순위	국가	1인당 GDP
1	룩셈부르크	11,990
3	노르웨이	11,172
4	스위스	8,828
6	오스트레일리아	7,725
7	스웨덴	6,496
8	덴마크	6,454
10	캐나다	5,794
12	미국	5,560
13	오스트리아	5,434
14	네덜란드	5,363
15	핀란드	5,324
16	일본	5,266
17	아일랜드	5,140
18	벨기에	5,054
19	프랑스	4,797
20	독일	4,778
21	아이슬란드	4,642
22	뉴질랜드	4,535
24	영국	4,360
26	이탈리아	3,805
27	이스라엘	3,553
28	스페인	3,380
32	그리스	2,712
34	대한민국	2,654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12)

주: 환율은 1,121원으로 계산

<표 4> 시도별 인구비율

(단위: %)

시도별	2000	2010	2020	2030	2040
서울특별시	21.4	20.3	19.7	19.6	19.4
부산광역시	7.9	7.0	6.5	6.1	5.9
대구광역시	5.4	5.0	4.7	4.5	4.3
인천광역시	5.4	5.5	5.7	5.9	5.9
광주광역시	2.9	3.0	3.0	2.9	2.8
대전광역시	3.0	3.1	3.1	3.1	3.1
울산광역시	2.2	2.2	2.2	2.1	2.1
경기도	19.5	23.4	25.0	25.7	26.0
강원도	3.2	3.0	3.0	3.0	3.0
충청북도	3.2	3.1	3.2	3.3	3.3
충청남도	4.0	4.2	4.4	4.5	4.7
전라북도	4.1	3.6	3.5	3.4	3.5
전라남도	4.3	3.6	3.4	3.3	3.3
경상북도	5.9	5.3	5.1	5.0	5.0
경상남도	6.5	6.5	6.5	6.4	6.4
제주도	1.1	1.1	1.1	1.1	1.1

자료: 통계청 KOSIS 전망치

<표 5> 시도별 인구순위

시도별	2000	2010	2020	2030	2040
서울특별시	1	2	2	2	2
부산광역시	3	3	3	4	5
대구광역시	6	7	7	8	8
인천광역시	7	5	5	5	4
광주광역시	14	13	13	14	14
대전광역시	13	12	12	12	12
울산광역시	15	15	15	15	15
경기도	2	1	1	1	1
강원도	11	14	14	13	13
충청북도	12	11	11	11	10
충청남도	10	8	8	7	7
전라북도	9	9	9	9	9
전라남도	8	10	10	10	11
경상북도	5	6	6	6	6
경상남도	4	4	4	3	3
제주도	16	16	16	16	16

자료: 통계청 KOSIS 전망치

- 통계청 추계인구를 살펴보면, 충남의 인구는 2000년 전체대비 4.0%에서 2010년 4.2%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증가폭은 매우 제한적임
- 충남의 인구는 2000년 16개 시·도 중 10위에서 2010년 8위로 올라섰으며, 2040년에는 7위를 차지할 것으로 여겨짐

<표 6> GRDP 비율

(단위: %)

시도별	2000	2010	2020	2030	2040
서울특별시	26.3	22.6	20.9	19.8	19.1
부산광역시	5.7	5.0	4.6	4.4	4.2
대구광역시	3.8	3.1	2.7	2.5	2.4
인천광역시	4.7	4.9	4.9	4.9	4.9
광주광역시	2.2	2.1	2.0	2.0	1.9
대전광역시	2.3	2.2	2.0	2.0	1.9
울산광역시	5.0	4.3	4.1	3.9	3.8
경기도	16.6	21.3	23.7	25.2	26.2
강원도	2.9	2.5	2.3	2.2	2.1
충청북도	3.2	3.2	3.1	3.1	3.2
충청남도	4.5	7.1	8.5	9.4	10.1
전라북도	3.1	2.8	2.7	2.6	2.6
전라남도	5.4	4.8	4.4	4.2	4.0
경상북도	6.6	6.4	6.4	6.2	6.1
경상남도	6.8	6.9	6.8	6.7	6.7
제주도	0.9	0.9	0.8	0.8	0.7

자료: 통계청 KOSIS

주: 미래전망은 2001~2010년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

- 2000년 충남의 국가대비 GRDP 비율은 4.5%정도 였으나 2010년 7.1%까지 급성장 하였으며, 이 증가추세는 204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



<표 7> GRDP 순위

시도별	2000	2010	2020	2030	2040
서울특별시	1	1	2	2	2
부산광역시	5	6	7	7	7
대구광역시	10	11	11	12	12
인천광역시	8	7	6	6	6
광주광역시	15	15	15	14	14
대전광역시	14	14	14	15	15
울산광역시	7	9	9	9	9
경기도	2	2	1	1	1
강원도	13	13	13	13	13
충청북도	11	10	10	10	10
충청남도	9	3	3	3	3
전라북도	12	12	12	11	11
전라남도	6	8	8	8	8
경상북도	4	5	5	5	5
경상남도	3	4	4	4	4
제주도	16	16	16	16	16

자료: 통계청 KOSIS

주: 미래전망은 2001~2010년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

<표 8> 1인당 GRDP 순위

시도별	2000	2010	2020	2030	2040
서울특별시	3	5	5	6	7
부산광역시	15	13	13	12	11
대구광역시	12	16	16	16	16
인천광역시	9	9	9	9	9
광주광역시	14	15	14	14	13
대전광역시	12	14	15	15	15
울산광역시	1	1	2	2	2
경기도	10	8	8	7	6
강원도	8	10	10	11	12
충청북도	7	7	7	8	8
충청남도	4	2	1	1	1
전라북도	13	11	11	10	10
전라남도	2	3	3	3	4
경상북도	5	4	4	4	3
경상남도	6	6	6	5	5
제주도	11	12	12	13	14

자료: 통계청 KOSIS

주: 미래전망은 2001~2010년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

-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 순위는 2010년 16개 시·도 중 9위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3위로 올라섰고, 이 순위는 204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충남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2000년 16개 시·도 4위 규모였으나 2010년 2위로 올라선 후, 2020년경에는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여겨짐

### 3) 충남의 교역잠재력

- 선진국의 성장 활력이 저조한 가운데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대두할 중국·인도의 GDP가 2040년 세계 경제의 40%가량을 차지하면서 18세기 이후 다시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예정
- 또한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이 확대되어 상품·자본·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임
-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기조 속에서 지역 단위 경제통합체와 경제블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sup>2)</sup>
- 2000년 충남의 대중국 교역은 전체대비 9.1%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충남의 대중국 수출비율은 37.6%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40년에는 45.4%까지 증가할 전망
- 충남의 주요 교역국인 홍콩의 경우 수출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여겨지나, 미국, 일본, 대만 등 전통적인 교역국의 수출비율은 감소할 전망

---

2)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기획재정부(2013)

<표 9> 충남의 국가별 교역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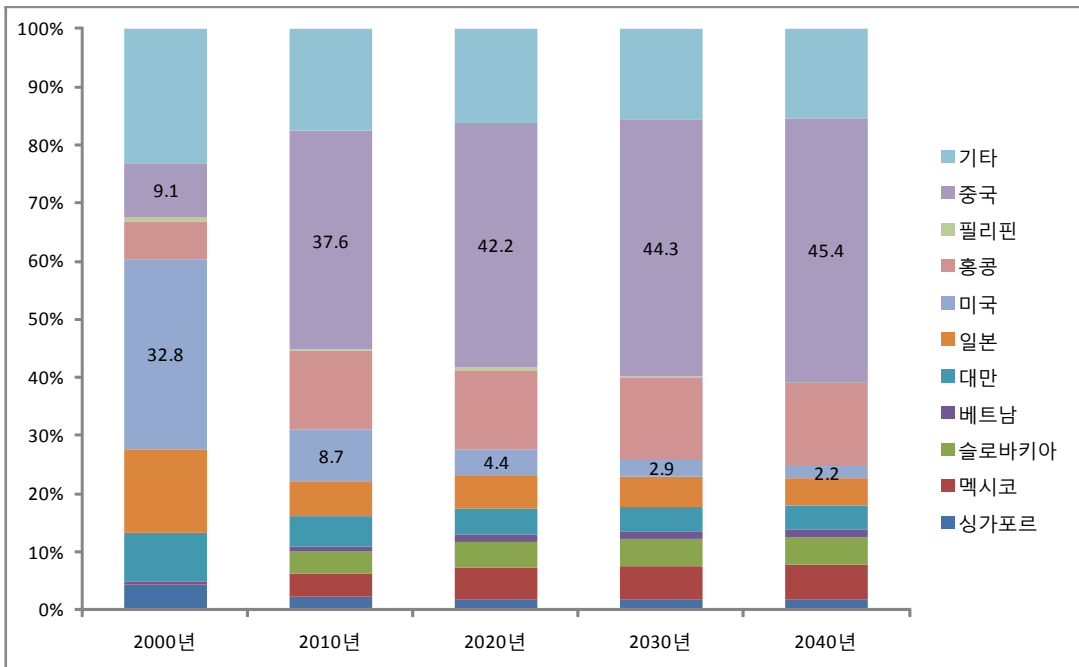
국가명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싱가포르	4.2	2.2	1.9	1.7	1.7
멕시코	0.1	4.0	5.4	5.8	6.0
슬로바키아	0.0	3.9	4.3	4.6	4.8
베트남	0.5	0.9	1.4	1.4	1.5
대만	8.5	5.1	4.5	4.2	4.0
일본	14.3	6.1	5.8	5.1	4.7
미국	32.8	8.7	4.4	2.9	2.2
홍콩	6.6	13.6	13.6	14.0	14.2
필리핀	0.7	0.4	0.3	0.3	0.2
중국	9.1	37.6	42.2	44.3	45.4
기타	23.3	17.5	16.2	15.6	15.4
충남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KOSIS

주: 미래전망은 2001~2010년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

[그림 2] 충남의 국가별 교역 비율

(단위 %)



## 2. 미래충남의 불안요소

### 1) 충남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표 10> 충남의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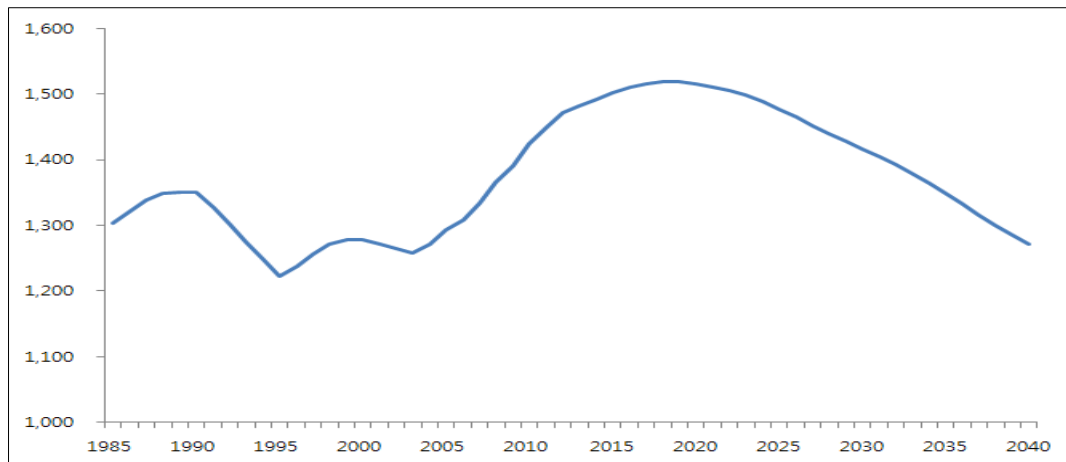
(단위: 천명)

년도	인구	생산가능인구 계(15~64세)	생산가능인구 15~24세	생산가능인구 25~49세	생산가능인구 50~64세
1990	1,992	1,350	428	625	298
1995	1,784	1,223	328	599	296
2000	1,879	1,278	299	688	291
2005	1,918	1,293	272	726	294
2010	2,076	1,424	290	777	357
2015	2,179	1,502	282	779	441
2020	2,253	1,516	241	764	511
2025	2,318	1,477	208	727	542
2030	2,370	1,416	203	676	536
2035	2,402	1,348	205	618	525
2040	2,408	1,271	204	580	488

자료: 통계청 KOSIS 전망치

[그림 3] 충남의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추이

(단위: 천명)



- 통계청의 예측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인구는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생산가능 인구는 2020년 151.6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0년에는 127.1만명까지 감소
- 특히 15~24세 인구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이동렬(2013)의 연구에서도 2000년대 경제성장세 둔화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는 시기에 노동생산성도 산업 전반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데 크게 기인한 현상으로 분석
- 이와 같은 충남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충남의 경제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나 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구조변화로 인해 제한적으로 작용

## 2) 충남의 주력산업의 지속여부

- 충남도의 제조업 비중 성장은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에서 그 취약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충남의 제조업 비중은 2010년 50.96%에서 2020년 56.21%로 증가하고 2040년에는 60.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여겨짐
- 이와 같은 추세로 살펴볼 때 충남의 미래는 제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표 11> 충남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

산업 구분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농림어업	14.71	11.08	5.18	3.62	2.95	2.57
광업	0.36	0.31	0.13	0.13	0.12	0.11
제조업	28.35	30.80	50.96	56.21	59.26	60.9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2	3.66	4.19	4.38	4.44	4.48
건설업	9.98	8.09	6.10	5.70	5.39	5.22
도매 및 소매업	3.93	4.03	2.34	1.89	1.65	1.52
운수업	2.15	3.46	2.23	2.14	2.06	2.02
숙박 및 음식점업	2.31	1.77	0.97	0.73	0.60	0.52
정보 및 통신업	0.65	1.13	0.88	0.73	0.64	0.59
금융 및 보험업	1.23	2.45	2.03	1.76	1.63	1.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3.82	4.61	2.59	2.07	1.80	1.65
사업서비스업	1.34	1.73	1.08	0.91	0.85	0.8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36	8.14	4.44	3.54	3.07	2.81
교육서비스업	7.58	5.25	3.22	2.54	2.19	2.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96	2.08	1.50	1.39	1.34	1.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0.31	0.44	0.64	0.65	0.65	0.66
기타서비스업	1.77	1.50	1.18	1.03	0.95	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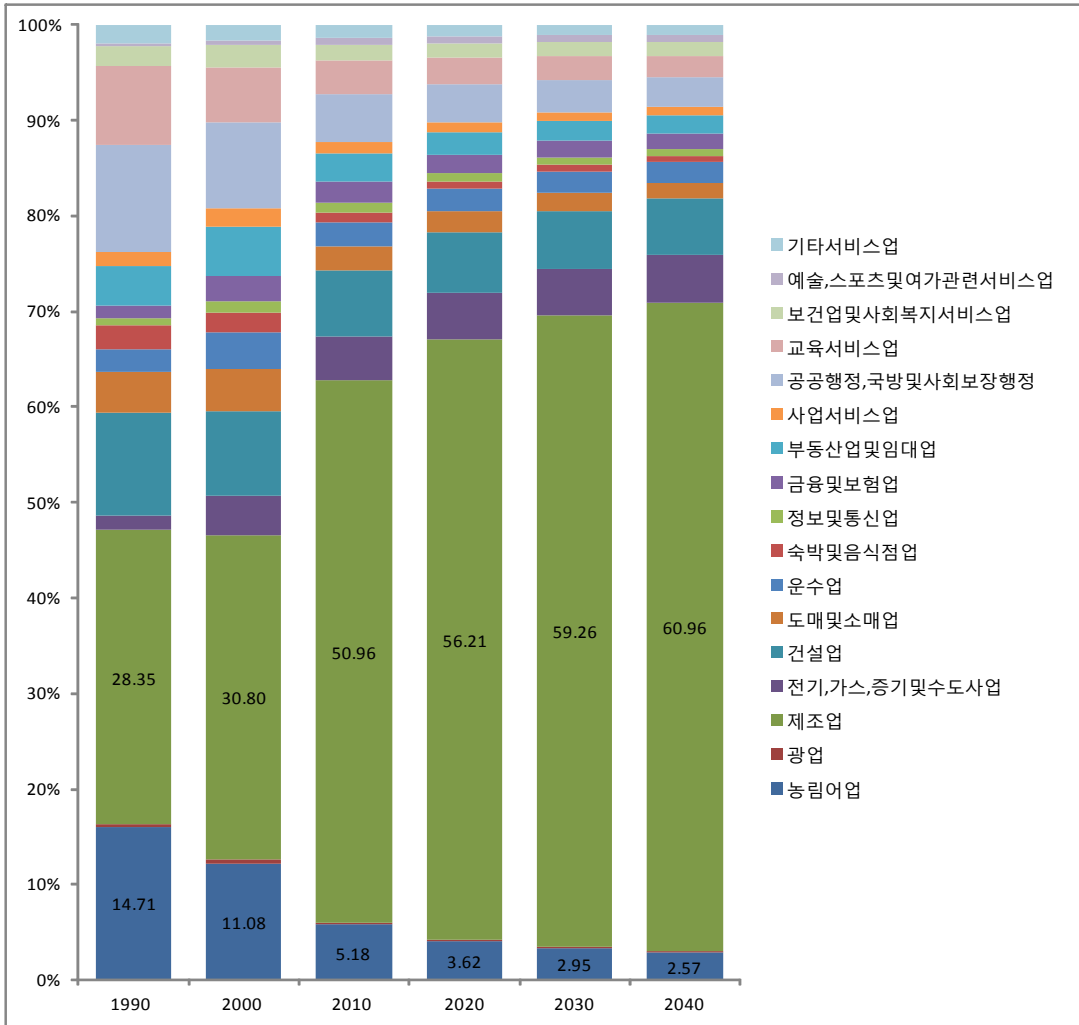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주: 미래전망은 2001~2010년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

- 충남의 4대 전략산업은 자동차, 전자정보, 의약바이오, 문화컨텐츠이며, 이들 산업은 10년간 충남의 제조업을 견실히 견인하고 있음
- 그러나 산업의 주기상 이와 같은 성장세가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남이 지금과 같은 고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만 함
-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견제로 일명 ‘샌드위치’ 상황에 있어 미래가 밝다고 장담할 수 없음

[그림 4] 충남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



- 우리는 영국자동차의 몰락을 지켜보았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도 자칫 방심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시사
- 실례로 미국 최대 공업도시이자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불리던 디트로이트도 최근 파산을 선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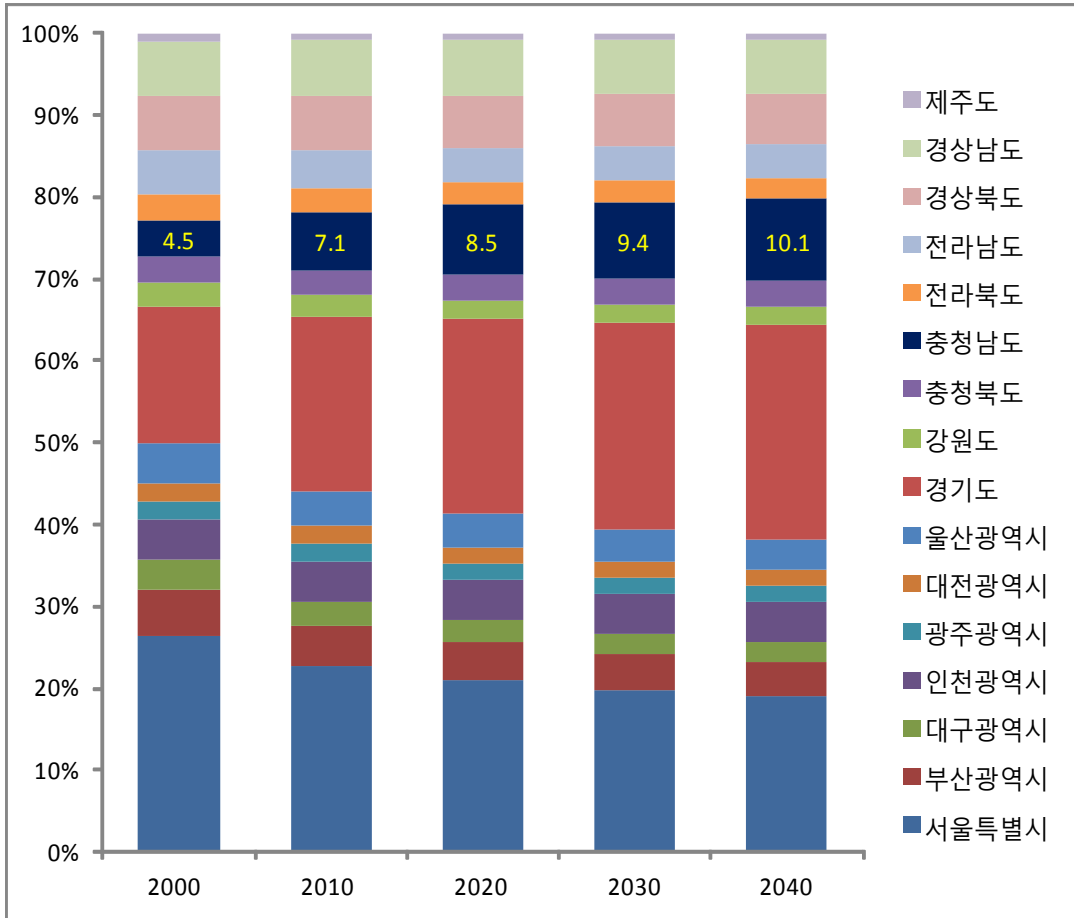
- 파산을 신청한 디트로이트의 장기부채 규모는 200억 달러(한화 약 22조원)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디트로이트의 주력산업이던 자동차 산업이 수입 자동차의 영향으로 쇠퇴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 충남도는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전자정보 중심의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이 두 산업의 위기는 곧 충남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충남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충남의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수소연료자동차, 스마트자동차 같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통해 자동차 산업이 향후 30년간 도 충남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산·학·관이 협력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농림어업의 비중은 1990년 17.7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5.18%까지 감소하고 2040년에는 2.57%까지 감소할 것으로 여겨짐
- 비록 농림어업의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충남의 농업인구는 그 비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농림어업의 발전을 위한 별도의 자구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향후 농림어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한·중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감소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



### 3) 총생산 대비 낮은 소득(지출)수준

[그림 5] 충남의 GRDP 비율

(단위:%)



자료: 통계청 KOSIS

주: 미래전망은 2001~2010년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

-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7.1%에서 2020년 8.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 1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여겨짐

<표 12> 충남의 총지출 비율

(단위:%)

시도별	2000	2010	2020	2030	2040
서울특별시	23.9	24.5	24.4	24.2	24.0
부산광역시	7.7	6.5	5.9	5.6	5.3
대구광역시	5.2	4.5	4.2	4.0	3.9
인천광역시	5.0	4.9	4.9	4.9	4.9
광주광역시	2.8	2.7	2.6	2.5	2.5
대전광역시	3.1	3.5	3.7	3.8	3.9
울산광역시	2.1	2.1	2.2	2.2	2.2
경기도	18.9	22.8	24.8	25.9	26.7
강원도	3.5	3.3	3.2	3.1	3.1
충청북도	3.0	2.8	2.7	2.6	2.6
충청남도	3.9	3.8	3.8	3.8	3.8
전라북도	3.8	3.2	2.9	2.7	2.6
전라남도	4.1	3.3	3.0	2.9	2.8
경상북도	5.6	4.7	4.3	4.0	3.9
경상남도	6.3	6.3	6.4	6.5	6.6
제주도	1.1	1.1	1.1	1.1	1.1

자료: 통계청 KOSIS

주: 미래전망은 2001~2010년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

<표 13> 총지출 순위

시도별	2000	2010	2020	2030	2040
서울특별시	1	1	2	2	2
부산광역시	3	3	4	4	4
대구광역시	6	7	7	7	8
인천광역시	7	5	5	5	5
광주광역시	14	14	14	14	14
대전광역시	12	9	9	8	7
울산광역시	15	15	15	15	15
경기도	2	2	1	1	1
강원도	11	11	10	10	10
충청북도	13	13	13	13	13
충청남도	9	8	8	9	9
전라북도	10	12	12	12	12
전라남도	8	10	11	11	11
경상북도	5	6	6	6	6
경상남도	4	4	3	3	3
제주도	16	16	16	16	16

자료: 통계청 KOSIS

주: 미래전망은 2001~2010년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총지출 비율은 2010년 3.8%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충남의 높은 GRDP 비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지출비율은 매우 낮음
-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40년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 순위는 3위이나 총지출순위는 9위에 머물 것으로 여겨져 총생산과 지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

<표 14> 1인당 총지출 순위

시도별	2000	2010	2020	2030	2040
서울특별시	1	1	1	2	2
부산광역시	4	9	8	8	8
대구광역시	8	11	10	9	9
인천광역시	14	13	13	13	12
광주광역시	10	14	12	11	10
대전광역시	3	2	2	1	1
울산광역시	15	7	7	4	3
경기도	7	5	6	7	5
강원도	2	3	3	3	7
충청북도	12	12	14	14	15
충청남도	5	10	11	12	13
전라북도	16	15	16	15	16
전라남도	11	8	9	10	11
경상북도	13	16	15	16	14
경상남도	9	6	4	5	4
제주도	6	4	5	6	6

-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1인당 지출수준임
-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40년 충남의 1인당 총생산은 2020년경 16개 시·도 중 1위이나 2040년 1인당 지출수준은 13위로 하락하여 그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짐

- 충남은 지금부터라도 1인당 총소득과 1인당 지출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가야 할 것임

#### 4) 중국과의 높은 교역비율

- 충남의 수출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사항은 기회이자 위기임
- 급변하는 세계경제 및 중국경제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충남의 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
- 특히 중국과는 FTA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

### 3. 충남 미래의 정책방향

#### ①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 기술의 발달과 기계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는 제한적일 것으로 여겨지나, 부정적 영향은 발생
- 따라서 충남은 지역의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노동자가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도록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R&D관련 예산도 확대해야 함
- 또한, 외투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선진기술과 경영방법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여가야 함
- 아울러 지역의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이 지역에 남아 지역의 소비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② 충남의 주력산업의 지속여부

- 충남의 주력산업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함
- 충남의 4대 전략산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충남의 새로운 산업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함
- 향후 지역간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기 위해서는 신산업 발굴을 위한 연구센터 추진, 충청 광역권간 협력체계 구축, 산·학·관 협력강화 등 기반을 구축해 가야함
- 충남은 미래 트렌드를 올바르게 읽고, 10년, 아니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충남의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임

### ③ GRDP 비중 대비 낮은 소득수준

- 충남의 낮은 소득수준은 반드시 충남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충남의 총생산과 지출수준의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고착화 된다면, 충남은 수도권의 생산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음
- 따라서 생산·분배·지출이 지역에서 환류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충남이 타시도보다 한발 앞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회적 경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충남 경제의 기본을 다져가야 할 것임
-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은 지역선순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④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충남은 수출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한·중 FTA가 협상 중에 있어 FTA가 체결된다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임
- 따라서 무엇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특히 향후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짐을 감안했을 때 중국 무역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중국해외무역사무소 기능의 확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아울러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출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해외무역박람회,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전통적인 수출국인, 미국, 일본, 대만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만큼, 이에 대한 원인도 파악해야 할 것임

## 4. 요약 및 결론

<표 15> 연구의 요약

충남의 미래	위험요소	정책방향
지속적 경제성장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인력양성, 정주여건 강화
1인당 총생산 1위	총생산 대비 낮은 소득수준	사회적경제 지속적 추진
제조업의 높은 비율	충남 주력산업의 지속여부	신성장 동력 발굴
지속적 수출증가 중국과의 교역비중 높음	중국에 편중된 교역	수출거래선 다양화 지속적 수출중소기업 지원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 강화

-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할 전망
- 충청도 또한 국가의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 순위는 2010년 3위로 올라섰고, 이 순위는 204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2020년경에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여겨짐
- 충남의 높은 제조업 비율과 대중국 교역의 확대는 충남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겠지만, 이와 같은 장밋빛 미래에도 충남의 불안요인은 상존함
- 충남도의 제조업 치중 성장은 생산인구의 감소와 세계적인 경제위기 하에서 그 취약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지역민 소득의 척도인 충남의 총지출 비율은 2010년 3.8%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40년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 순위는 3위이나 총지출순위는 9위에 머물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충남의 1인당 총생산은 2020년경부터 16개 시·도 중 1위를 유지할 것이나 1인당 지출수준은 13위로 하락하여 그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짐
- 마지막으로 충남의 수출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은 기회이자 위기도 될 수 있음



- 급변하는 세계경제 및 중국경제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충남의 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충남은 지역의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이 지역에 남아 지역의 소비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충남의 주력산업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함
- 충남의 낮은 소득수준은 반드시 충남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따라서 생산·분배·지출이 지역에서 환류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충남이 타시도보다 한발 앞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회적 경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충남 경제의 기본을 다져가야 할 것임
-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은 지역선순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한·중 FTA가 협상 중에 있어, 한·중 FTA가 타결된다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임
- 향후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짐을 감안했을 때 중국 무역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중국해외무역사무소 기능의 확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아울러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출국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해외무역박람회,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그러나 본연구의 한계도 존재하는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 등의 충격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종시 효과를 감안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sup>3)</sup>라 할 수 있음

**김 양 중**, kyj0509@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041-840-1163

## ◆ 참 고 자 료 ◆

"2013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2012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기획재정부, 2013

"한국의 실질 GDP 장기 예측: 2007~2050", 국회예산정책처, Economic Issue Brief No.22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기획예산처, 2006

이동렬,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하락요인 분석", 한국은행, 2013

---

3) 현행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아직까지 세종시를 충남에 포함하고 있어 세종시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 충남리포트 발간리스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제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준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권영현	2010. 4. 5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윤정미	2010. 6.21
2010-11	충남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 · 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 · 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군의 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년 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 · 이선호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임준홍 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진 · 김영일	2011.06.23
2011-07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2011-09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	정옥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 연구	김양중	2011.10.31
2011-12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지정책의 개선방안	홍성호	2011.11.30
2011-1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	이인희	2011.12.29
2012-01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종수	2012.01.31
2012-02	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동호	2012.02.13
2012-03	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4	2012년 충남 GRDP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5	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임형빈	2012.03.12
2012-06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송두범 · 김종수	2012.04.02
2012-07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김영일	2012.05.31
2012-08	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	조영재	2012.06.21
2012-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	전영노 · 백운성외	2012.08.10
2012-10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허남혁 · 정준	2012.08.16
2012-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윤정미	2012.09.20
2012-12	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	정옥식	2012.10.31
2012-13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한 도심녹지체계 확보	사공정희	2012.11.28
2012-14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양중	2012.12.12
2013-01	충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특성분석과 정책수요 도출	홍성호 외	2013.02.21
2013-02	2013년 충남 수출 및 GRDP 전망	김양중	2013.03.07
2013-03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	송두범 외	2013.04.19
2013-04	에코유지엄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방안	여형범	2013.04.29
2013-05	충남지역 귀농·귀촌 실태 비교 연구	유학열	2013.05.10
2013-06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강마야 · 여민수	2013.07.10
2013-07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허남혁 외2명	2013.07.18
2013-08	대형마트 의무휴업, 그 후 1년; 일본 상점가정책의 시사점	이민정	2013.08.09
2013-09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이관률	2013.08.23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http://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